

# ICT산업

## 2023년 1분기 동향

- I. 반도체
- II. 디스플레이
- III. 휴대폰
- IV. 시사점

### 작성

선임연구원 이미혜 (6252-3608)





## < 요약 >

### **(반도체) 1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6.4%, 전분기 대비 19.0% 역성장**

- (세계시장)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9.8%, 전분기 대비 21.2% 감소한 96.6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1.9%, 전분기 대비 16.1% 감소한 86.3억 달러 기록
- (가격) D램 고정거래 가격은 2021년 4분기부터 하락세 지속,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2022년 6월에 하락세로 전환된 후 하락세 지속하면서 각각 1.81달러, 4.07달러를 기록
- (수출)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210억 달러 기록, 3분기 연속 역성장

### **(디스플레이) 1분기 디스플레이 시장은 TV·스마트폰·IT기기(PC 등) 수요둔화, 수요기업의 재고조정, 전년동기 대비 낮은 패널 가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역성장**

- (세계시장) LC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35%, OLED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
- (가격) LCD TV 패널 가격은 2021년 3분기부터 하락했으나 2022년 3분기부터 반등, OLED TV 패널 가격은 수요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하락
- (수출) 1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50.7억 달러를 기록,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휴대폰)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기둔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한 3.0억 대를 기록**

- (세계시장)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시장점유율)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모델 출시 효과 약화로 세계 1위를 탈환했으며 샤오미는 세계 3위를 유지했으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
- (수출)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2%, 전분기 대비 15.9% 감소한 32.7억 달러 기록

**(시사점)** 반도체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고로 업황 회복 속도는 더디고,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업의 사업구조, 고객사 등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될 전망



## I. 반도체

### (세계시장) 1분기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6.4%, 전분기 대비 19.0% 역성장

- 1분기 세계 D램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9.8%, 전분기 대비 21.2% 감소한 96.6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51.9%, 전분기 대비 16.1% 감소한 86.3억 달러 기록
-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은 IT기기 수요둔화, 수요기업의 재고조정,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PC 출하량은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0% 감소했으며 PC 수요 약화로 PC제조사의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진도 더딘 상황
    - \* PC 출하량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2.3분기) △19.5 → (4분기) △28.5 → ('23.1분기) △30.0 (가트너)
  - 스마트폰 출하량은 인플레이션,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
  -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했으나 주요 기업은 반도체 재고소진에 집중
- 1분기 주요 기업의 반도체 재고자산은 감산<sup>1)</sup>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감소 등으로 2022년 말 대비 의미있는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주요 기업은 '22년 4분기에 감산을 발표했으나 1분기 재고자산은 '22년말 대비 증가 또는 소폭 감소
    - \*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 ('22.1분기)11.9조원 → (4분기)15.6조원 → ('23.1분기)17.2조원
    - \* 마이크론의 재고자산: ('22.1분기)53.8억 달러 → (4분기)83.6억 달러 → ('23.1분기)81.3억 달러

세계 D램 시장규모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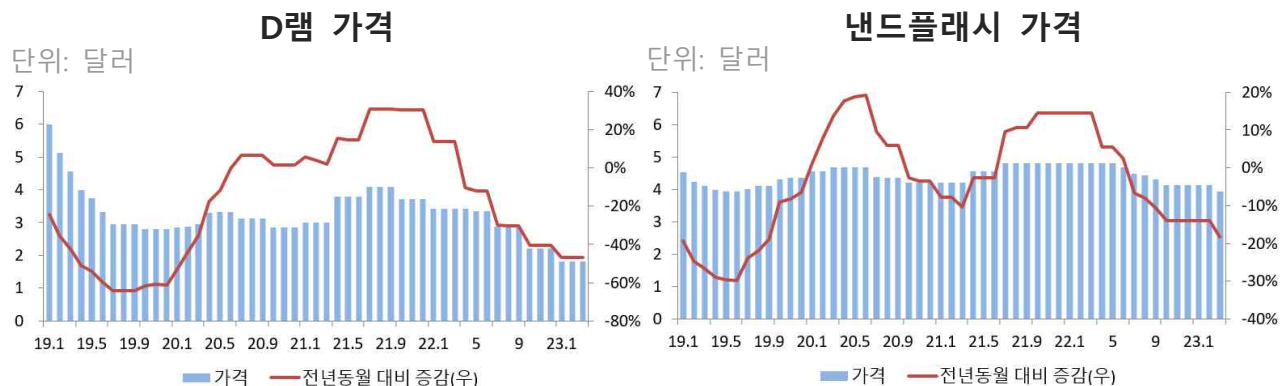
자료: 옴디아.

1) SK하이닉스는 2023년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50% 감축, D램과 낸드플래시 구공정 중심으로 감산. 마이크론은 2023년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50% 감축, D램과 낸드플래시 웨이퍼 투입량을 20% 축소 계획을 발표



## (가격) D램 고정거래 가격은 2021년 4분기부터 하락세 지속, 낸드플래시 고정거래 가격은 2022년 6월에 하락세로 전환된 후 하락세 지속

- 1분기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46.9%, 전분기 대비 18.1% 하락한 1.81달러,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5.4%, 전분기 대비 1.7% 하락한 4.07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요기업은 '22년 상반기에 공급망 붕괴 우려 등으로 반도체 재고를 축적했으나 하반기부터 IT기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재고 소진에 주력
- 낸드플래시는 D램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아 중국의 리오프닝 등의 영향으로 D램 보다 가격하락 폭이 적음
- 2분기 D램 가격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전분기 대비 각각 13~18%, 8~13% 하락할 전망
- 1분기 D램 재고는 15~16주 수준으로 추정되며 수요둔화, 재고조정 등으로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 2분기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D램 팹 가동률은 74~82% 수준으로 예상 (트렌드포스)
- 2분기부터 메모리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3분기부터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전망
- 메모리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는 4월초에 감산을 공식 발표했으며 1분기부터 D램 웨이퍼 투입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점유율('23.1분기): [D램] 43.2%, [낸드플래시] 34.0% (트렌드포스)
-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기업과 수요기업의 반도체 재고가 많고,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수요회복이 지연되어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



주: D램은 DDR4 8Gb 1Gx8 2133Mbps(PC용), 낸드플래시는 128Gb 16Gx8 MLC(메모리카드/USB용) 고정거래 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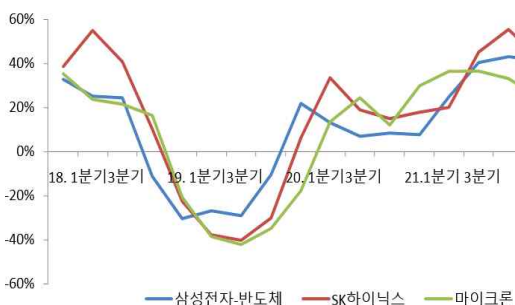
자료: 트렌드포스.



## (기업)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업황 악화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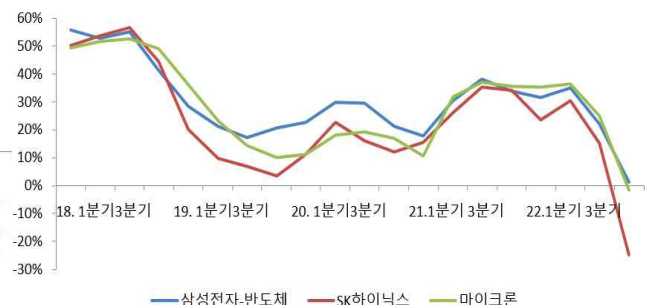
-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9% 이상 감소
  - 삼성전자의 DS부문<sup>2)</sup>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한 13.7조원, 메모리반도체 매출(매출 비중 65%)은 전년동기 대비 56% 감소한 8.9조원을 기록
  - 비메모리반도체 매출은 주요 시스템반도체 제품 수요 감소,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한 4.8조원을 기록
  -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8%, 전분기 대비 34% 감소한 5.1조원을 기록
  - D램 매출(매출 비중 58%)은 전년동기 대비 63% 감소한 3.0조원,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7% 감소한 1.7조원을 기록
  - 마이크론의 매출(12~2월)은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한 36.9억 달러를 기록
  - D램 매출(매출 비중 74%)은 전년동기 대비 52%, 낸드플래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
- 주요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가격하락 등으로 영업손실을 기록
  - 삼성전자 DS부문은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으로 영업손실은 4.6조원, 영업손실률은 33%를 기록
  - SK하이닉스는 2022년 4분기에 영업손실(1.9조원)로 전환, 2023년 1분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1조원 수준) 등으로 영업손실 폭이 3.4조원으로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 △67%를 기록
  -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하면서 영업손실 기록. 분기 기준 7년만에 영업손실로 전환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 전년동기 대비 매출증가율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2) Device Solution. 반도체사업을 포함



## (수출)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210억 달러 기록, 3분기 연속 역성장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1.2% 감소한 102.6억 달러를 기록, 3분기 연속 역성장했으며 수출 감소폭 확대

\* 메모리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기 대비, %): ('22.3분기)△18.6 → (4분기)△44.6 → ('23.1분기)△51.2

- 비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0.7% 감소하면서 107억 달러를 기록, 역성장으로 전환

- 파운드리(고객사(팹리스 등)의 요청에 따라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여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IT기기 수요 부진 등으로 가동률 하락

-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4%, 대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

- 대중국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50.1%, 시스템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31.6% 감소하면서 109억 달러를 기록

- 베트남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41.6%, 시스템반도체는 전년동기 대비 9.8% 감소하면서 31억 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물가 지수(2015=100)는 2022년 3분기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하락, 반도체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2022년 4분기부터 하락세

-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4% 하락했으나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2022년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8.9%, 4분기에 18.8%, 2023년 1분기에 29.7% 하락

\* 수출물량지수: ('22.1분기)321 → (2분기)329 → (3분기)352 → (4분기)327 → ('23.1분기)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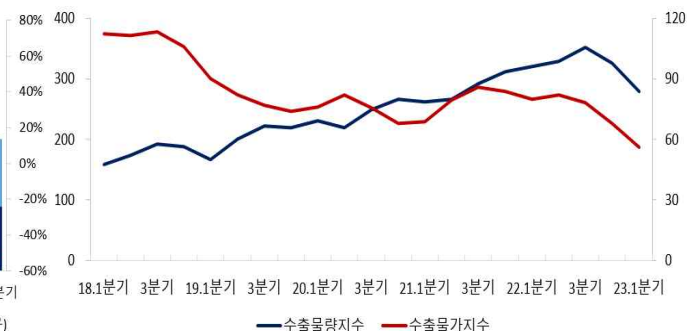
\* 수출물가지수: ('22.1분기)80 → (2분기)82 → (3분기)78 → (4분기)68 → ('23.1분기)56

반도체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반도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



주: 1) 비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 광·개별소자(LED 등 회로를 구성하는 각각의 소자)를 포함.

2)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 II.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1분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TV·스마트폰·IT기기(PC 등) 수요둔화, 수요 기업의 재고조정, 전년동기 대비 낮은 패널 가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역성장**

- (LCD) LCD 시장은 TV와 노트북용 LCD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5%, 11.3% 감소하고 전년동기 대비 낮은 LCD 패널 가격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
  - 대형 LCD 시장은 패널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으며, TV 패널 가격이 반등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낮은 가격으로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
  - 패널 수요기업들은 3월까지 패널 구매보다는 재고소진에 집중
- 중소형 LCD 패널 시장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감소
- (OLED) OLED 시장은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매출비중 75%)이 전년동기 대비 4% 역성장했으나 모니터용 OLED 시장의 성장(전년동기 대비 6.6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5% 성장
  - 하이엔드 TV 수요가 경제성장을 둔화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OLED TV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하여 LCD TV 패널 출하량 감소폭(22%) 보다 큰 폭 하락
  - IT기기 수요둔화 등으로 태블릿과 노트북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 19% 감소했으나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598% 증가
  - 주요 기업이 OLED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 본격 참전하고<sup>3)</sup> 하이엔드 모니터 시장에 OLED 탑재가 증가하면서 모니터용 OLED 패널 수요가 증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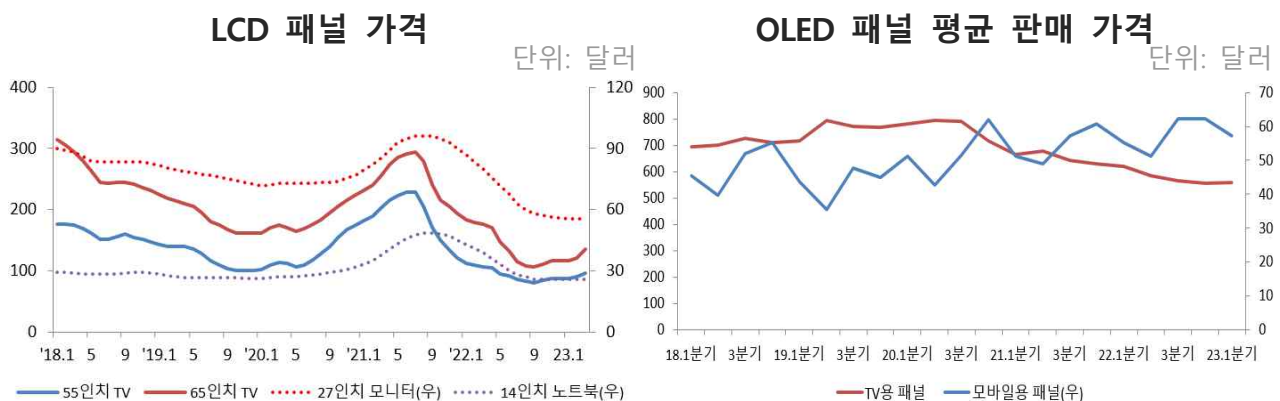
자료: 옴디아.

3) 주사율이 높을수록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으며 OLED 게이밍 모니터는 최대 240Hz를 지원



## (가격) LCD TV 패널 가격은 2021년 3분기부터 하락했으나 2022년 3분기부터 반등, OLED TV 패널 가격은 수요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하락

- (LCD) LCD TV 패널 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주요 기업이 LCD 팹 가동률을 조정하면서 반등했으며 2023년 1분기에도 상승세 지속
- 55인치와 65인치 UHD(Ultra High Definition, 4K 해상도) TV 패널 가격은 각각 전분기 대비 6%, 9% 상승한 91달러와 124달러를 기록했으나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 31% 낮음
- 주요 기업은 TV 패널 수주에 생산하는 전략(Production to order)을 통해 팹 가동률 조정을 지속했으며, 국내기업은 국내 LCD 생산 중단하고<sup>4)</sup> LG디스플레이도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50% 수준으로 축소 운영
- 2분기 LCD TV 패널 가격은 패널 공장 가동률 조정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2분기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중국 리오프닝 영향 등으로 IT용 패널 가격도 반등할 전망
  - \* 2023년 9월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최초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여 게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모니터 수요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
- (OLED) OLED TV 패널의 평균 판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5% 상승, 전년동기 대비 9.6% 하락, 모바일용 OLED 패널 평균 판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8.0% 하락, 전년동기 대비 3.7% 상승
- OLED TV 패널 가격은 팹 가동률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TV 패널 수요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하락
  - \* OLED TV 팹 가동률 : ('22.1)83% → (3)83% → ('23.1)41% → (3)54%
- 모바일용 OLED 패널 가격은 견조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로 인한 고부가 패널(LTPO<sup>5)</sup> 등)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높은 수준을 기록



자료: 옴디아.

4)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6월에 대형 LCD 패널 생산을 종료했으며 하반기에는 기계약된 TV 패널을 출하하고 12월에는 LCD사업 전면 철수.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

5) 저온다결정산화물(Low-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 LTPO) 박막트랜지스터(TFT)를 적용하여 저전력 등의 장점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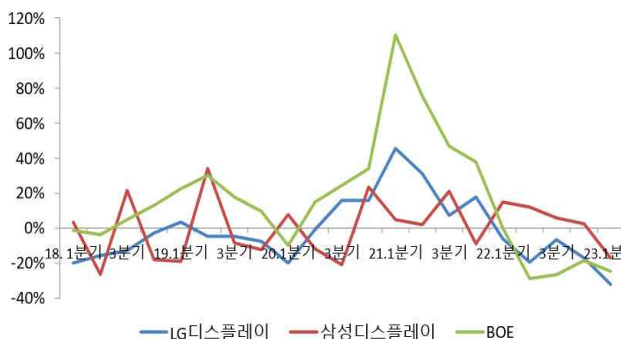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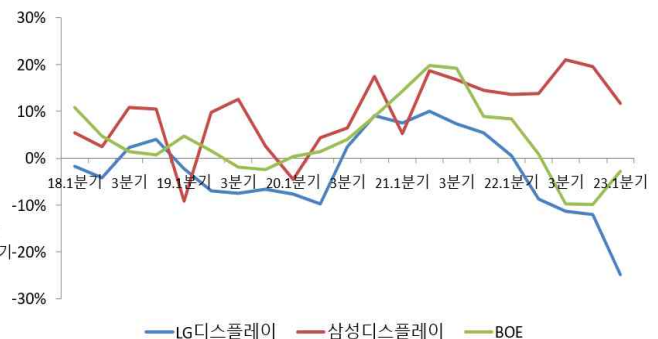
## (기업) 주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사업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차별화 지속

- (삼성디스플레이) 1분기 매출은 중소형·대형 OLED 시장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한 6.6조원을 기록
  - 매출과 영업이익은 스마트폰용 OLED 수요 감소, QD OLED<sup>6)</sup>의 낮은 수익성 등으로 각각 17%, 28% 감소
  -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은 '21년 11월말부터 QD OLED 패널 양산을 시작했으며, 수출 향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가, 낮은 판매가격 등으로 수익성이 낮음
    - \* 삼성디스플레이의 QD OLED 패널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대비 제조원가가 1.5배 높으나 판매가격은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됨 (65인치 패널 기준)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0.8조원을 기록했으나 중소형 패널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위 등으로 타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11.8%)을 기록
  - 아이폰14는 아이폰14, 아이폰14 Plus, 아이폰14 Pro, 아이폰14 Pro Max로 구성되며 고가 Pro 모델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
- (LG디스플레이)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한 4.4조원을 기록
  - 매출(OLED 비중 45%)은 TV 및 IT제품 수요 부진, LCD TV 패널 사업 축소<sup>7)</sup>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전분기 대비 40% 감소
  - 패널 가격하락, 재고 감축을 위한 생산조정 등으로 4분기 연속 영업손실 기록
    - 2020년 3분기에 흑자전환한 이후 2022년 2분기에 8분기만에 손실로 전환되었으며 영업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어 2023년 1분기에 1.1조원을 기록
    - \* 영업손실(억원) : ('22.2분기) 4,883 → (3분기)7,493 → (4분기) 8,757 → ('23.1분기) 10,980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BOE의 영업이익은 중국 정부 보조금 포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각사 홈페이지.

6) LG디스플레이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WOLED(White OLED), 삼성디스플레이는 청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쿼터닷(양자점) 컬러필터를 적용한 QD OLED 방식  
7) 2022년말 국내 LCD TV 팹 생산 종료



## (수출) 1분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8% 감소한 50.7억 달러를 기록,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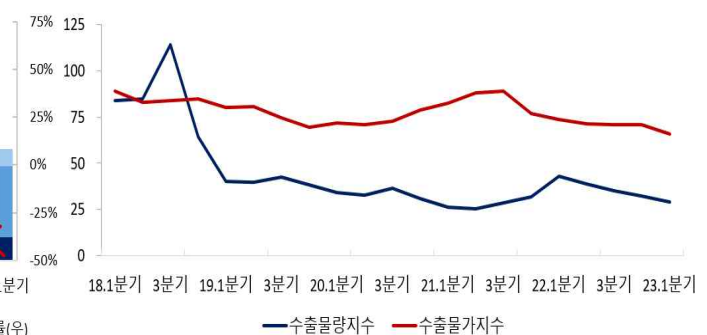
-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감소한 26.7억 달러, LC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한 8.8억 달러를 기록
    - OLED 수출은 스마트폰·TV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
    - LCD 수출은 국내기업의 LCD 사업 구조조정, LCD 가격하락 등으로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
  - 대베트남과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각각 31%, 54% 감소
    - 베트남 수출은 한국기업의 휴대폰·TV 생산기지로 휴대폰·TV 수요둔화 등으로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8%, LCD 수출은 65% 감소하면서 24억 달러를 기록
    - 중국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둔화 등으로 OLED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2%, LCD 수출은 49% 감소하면서 14억 달러를 기록
  -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2015=100)는 2021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락, 수출물량지수(2015=100)는 2022년 1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 지속
    -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하락했으나 OLED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3% 하락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 대비 양호한 모습
- \* 디스플레이 수출물가지수: ('22.1분기)73.5 → (2분기)71.3 → (3분기)70.8 → (4분기)70.6 → ('23.1분기)65.7
- \* OLED 수출물가지수('17.12=100): ('22.1분기)51.0 → (2분기)52.8 → (3분기)54.7 → (4분기)54.5 → ('23.1분기)49.5

디스플레이 수출액

단위: 억 달러



디스플레이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부분품은 편광판, BLU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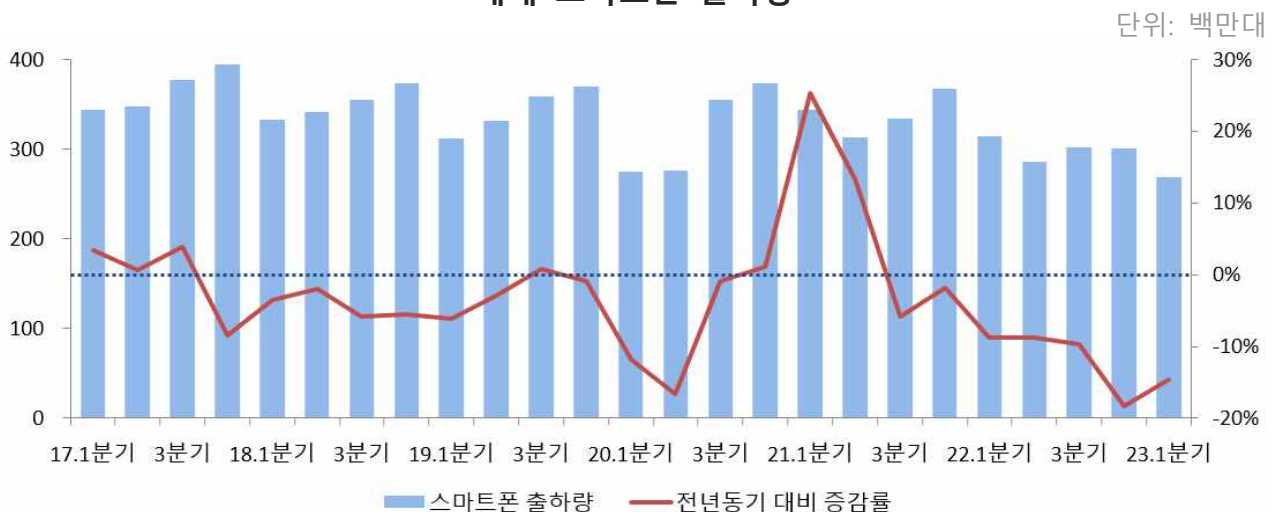


### Ⅲ. 휴대폰

#### (세계시장)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기둔화, 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4.6% 감소한 3.0억 대를 기록

-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7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리오프닝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보다 여행 등을 선호하고, 경제둔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한 65.4백만대를 기록, 8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수요 약화, 2022년 하반기에 증가한 스마트폰 재고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2% 감소한 30.7백만대를 기록,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역성장
  - 스마트폰 출하량은 감소했으나 5G폰 비중은 45%로 확대
- 미국과 서유럽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경제불확실성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1.5%, 9.4% 감소
- 스마트폰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가폰 수요가 사라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재고조정은 1~2분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을 기대
  - 소비자들은 친환경 소비 트렌드, 중고폰 시장의 성장 등으로 좋은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과거 대비 오래 사용하고 있음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자료: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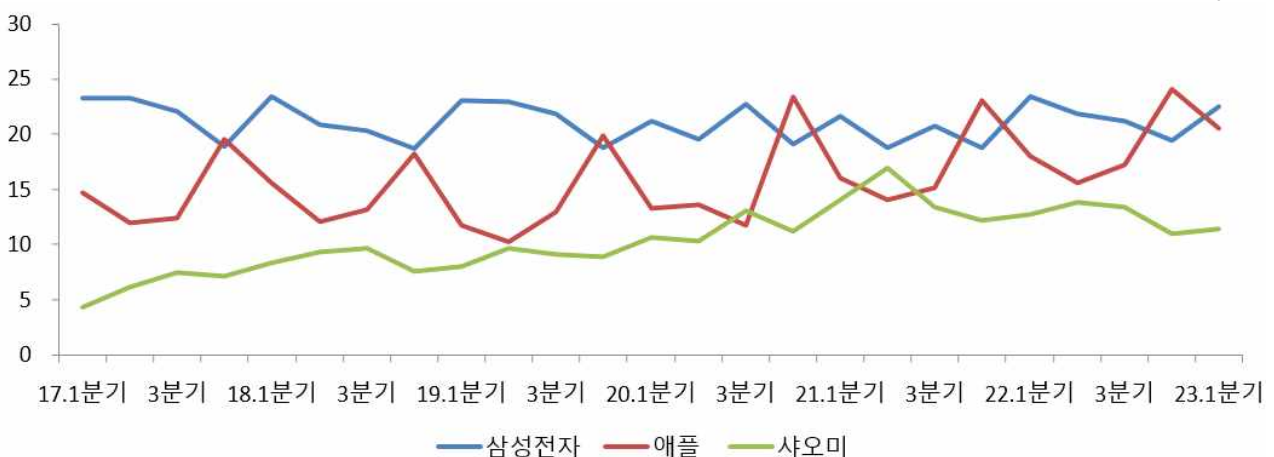


## (시장점유율) 삼성전자가 애플의 신모델 출시 효과 약화로 세계 1위를 탈환했으며 샤오미는 세계 3위를 유지했으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8.9% 감소, 시장점유율은 22.5%를 기록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수요 약세로 감소했으나 프리미엄 신모델(갤럭시S23)은 판매 호조를 보임
- 인도에서는 5G폰(갤럭시A 시리즈)과 갤럭시S23의 판매호조 등으로 1위로 재도약했으며 시장점유율은 20%를 기록
-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스마트폰 Top 3 기업중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폭( $\Delta 2.3\%$ )이 가장 낮았으며 시장점유율은 20.5%를 기록
- 아이폰 출하량은 중국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7.0% 감소했으나 인도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 감소에 그침
- 애플은 인도, 말레이시아, 호주 등에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
-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5% 감소, 시장 점유율은 11.4%를 기록
- 샤오미의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22.9% 하락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Delta 11.8\%$ ) 대비 부진한 실적을 기록
- 인도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41% 감소하면서 판매량 순위도 1위에서 4위로 하락

주요 기업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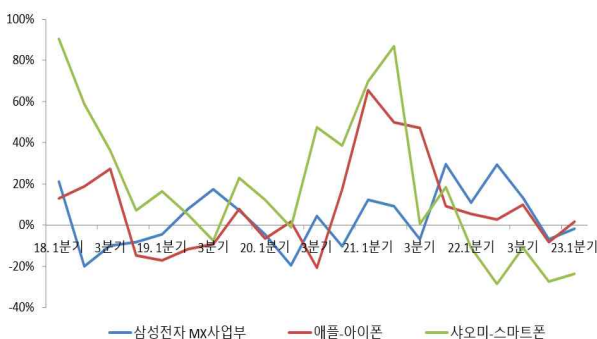
주: 출하량 기준.  
자료: I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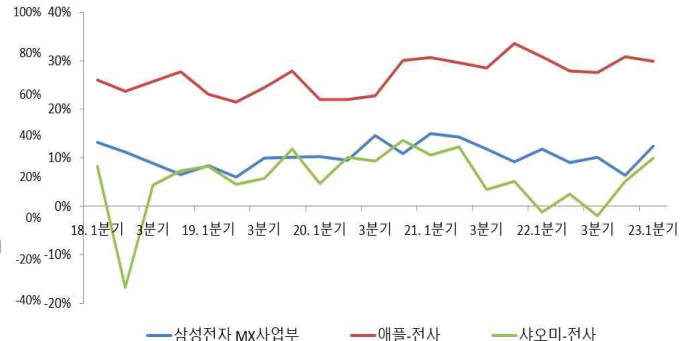
## (매출·수익성) Top 3 기업중 애플만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평균 판매가격 상승, 원가절감 노력 등으로 모든 기업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삼성전자 MX/네트워크사업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 영업이익은 프리미엄 신모델 판매효조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증가
- 스마트폰 수요 약세로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갤럭시S23 울트라 중심의 프리미엄폰 판매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2%를 기록
  - \* 갤럭시S23 시리즈는 S23, S23+, S23울트라가 출시되었으며 울트라가 최고가 모델(약 1,200~1,500억 달러)로 2억 화소 카메라 탑재, S펜 지원 등의 기능을 탑재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갤럭시S23 출시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전분기 대비 35% 증가한 340달러를 기록 (카운터포인트)
- 애플의 스마트폰 매출은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전사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
- 아이폰 매출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강달러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sup>8)</sup> 등에도 불구하고 평균 판매가격 상승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 \* 아이폰 평균 판매가격은 930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애플의 전사 영업이익률은 30%를 기록
- 샤오미의 스마트폰 매출은 출하량 감소, 평균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3.6% 감소, 전사 영업이익률은 10%를 기록
-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중국내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했으나, 해외에서 재고축소 노력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1,152위안(약 22만원)을 기록

주요 기업의 매출증가율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률



주: 애플과 샤오미의 영업이익률은 전사 기준.  
자료: 블룸버그 및 전자공시시스템.

8) 아이폰14는 아이폰13과 동일 가격이나 강달러로 다수 국가에서 가격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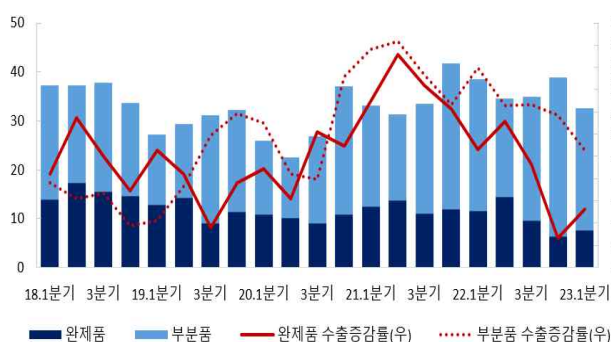


## (수출) 1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2%, 전분기 대비 15.9% 감소한 32.7억 달러 기록

- 부분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2%, 완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3.8% 감소
  - 부분품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5억 달러를 기록
  - 완제품 수출은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8% 감소하면서 7.7억 달러를 기록
  - \*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46.0%), 독일(11.0%), 영국(8.5%) 순
- 미국 수출은 견조했으나 대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 대중국 수출은 완제품은 자국기업 선호, 부분품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둔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 감소한 18억 달러를 기록
  - 대미국 수출은 갤럭시 신모델 출시 등으로 완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한 4.4억 달러를 기록
  - 대베트남 수출은 우리기업의 스마트폰 생산기지의 스마트폰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부분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한 4.2억 달러를 기록
- 휴대폰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1%, 전분기 대비 24% 감소, 수출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9%, 전분기 대비 7% 감소
  - \* 수출물량지수: ('22.1분기)101 → (2분기)92 → (3분기)101 → (4분기)105 → ('23.1분기)80
  - \* 수출물가지수: ('22.1분기)80 → (2분기)80 → (3분기)80 → (4분기)79 → ('23.1분기)73

휴대폰 수출액

단위: 억 달러



휴대폰 수출물량지수 및 수출물가지수



주: 수출물량지수와 수출물가지수는 2015=100, 원화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





## IV. 시사점

### 메모리반도체산업은 삼성전자의 감산 동참 등으로 하반기부터 업황이 개선되나 역대 최대 규모의 메모리반도체 재고로 업황 회복 속도는 더딜 전망

-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아 등에 이어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 발표했으나 IT기기 수요 약세, 재고조정 등으로 반도체 업황은 2024년에 반등할 전망
-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은 전년 대비 1.1% 감소에서 3.2% 감소로 수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수요회복으로 전년 대비 6% 성장할 전망
  - \* 2023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전망: ('23.2)△1.1% → ('23.6)△3.2% (IDC)
- 2023년 서버 출하량은 ChatGPT 열풍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9% 감소할 전망
  - \* 2023년 서버 출하량 증가율 전망: ('23.3)1.3% → ('23.5)△2.9% (트렌드포스)
- AI서버는 총 서버 출하량의 10% 미만으로 작아 서버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국의 서버 투자는 미국의 제재<sup>9)</sup>, 중국 경기 등에 영향을 받고 있음
- 4월 우리나라의 반도체 재고지수(2020=100)는 246.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통계청)

### 디스플레이산업은 기업의 사업구조, 고객사 등에 따라 차별화된 모습이 지속될 전망

- LG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나 TV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역성장할 전망
-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최대 구매자인 애플의 공급사 다변화 전략으로 LG디스플레이의 아이폰 패널 공급량 비중은 전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TV용 OLED 패널은 수요 부진 등으로 1분기 가동률을 낮추었으며 2023년 연간 출하량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
  - \* LG디스플레이의 삼성전자 TV 사업부의 OLED 패널 공급은 2023년 하반기부터로 예상
-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정체되나 TV·IT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성장을 지속할 전망
-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중국의 공격적인 가격전략<sup>10)</sup>, 애플의 공급사 다변화 전략 등으로 정체되나 고부가 패널 중심의 사업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TV용 OLED 패널은 삼성전자의 QD OLED TV 국내 출시 등으로 출하량이 증가할 전망

9) 첨단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 규제 등을 시행

10) 삼성디스플레이의 6.1인치 플렉시블 OLED의 재료비는 28달러이나 중국기업은 20달러 수준에 공급(유비리서치)



## 휴대폰산업은 중국 시장 정체로 주요 기업이 인도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서는 인도 시장 점유율 수성이 필요

- 중국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618 쇼핑 축제가 중국 시장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상반기에는 618(6월), 하반기에는 광군제(11월, Single's Day)에 온라인 쇼핑 축제가 개최됨
- 인도는 중저가폰 중심의 시장이었으나 2023년에는 5G폰, 프리미엄폰 수요가 증가하면서 애플도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
- 1분기 인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265달러를 기록했으며 600달러 이상 스마트폰 점유율은 2022년 1분기 4%에서 2023년 1분기 11%로 상승
- 인도는 삼성전자와 중국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이었으나 애플은 4월 뭄바이와 뉴델리에 애플스토어 2개 점포를 오픈
- \* 1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삼성전자 20.1%, 비보(중) 17.7%, 오포(중) 17.6%, 샤오미(중) 16.4% (IDC)
- 애플은 미중갈등 심화 등으로 탈중국을 가속화하면서 베트남과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동하고 있으며 2022년 인도의 아이폰 생산량 비중은 약 7%